

문득 멈춰 선 그곳에서 되돌아본 광주의 기억과 경험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결과전 '시선:인식의 시작' 17일까지 청년예술센터...입주자가 5팀 창작결과물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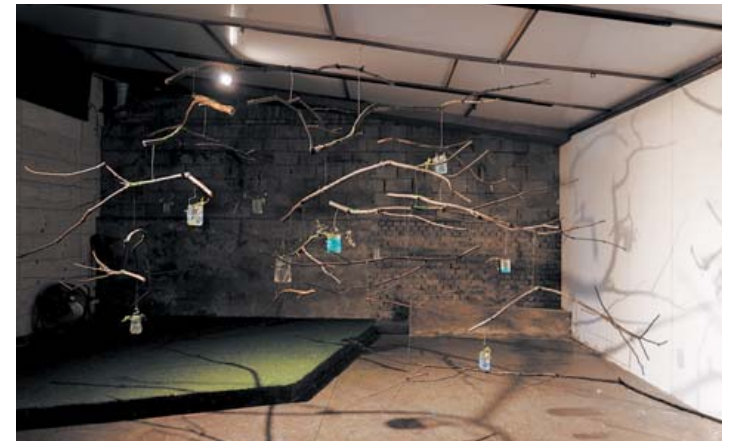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이 국제레지던시 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남구 사직길12)에서 진행되는 국제레지던시 결과전 '시선:인식의 시작'이다. 이번 결과전에서는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던 눈이 어딘가에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시각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 5명(팀)의 입주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지역출신 신도원(미디어아트), 박기태(조형) 작가를 비롯해 서울 출신 박세연(사진·혼합매체), 국제교류 입주작가

미디어던스트(mediendienst) 라이스통스웰레(미디어·퍼포먼스·조형), 엘리 크루시(미디어·설치·퍼포먼스) 작가(팀)가 참여한다. 이들은 레지던시에 2-3개월 간 입주해 광주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박기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 생태의 균형을 중심으로 순환의 의미를 살피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의 중요성과 인간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균형에 필요한 물 보충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작가는 '상생'을 위한 인간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다.

박세연 작가는 익숙해서 스쳐 지나친 것들을 새롭게 인식해 고정된 인식과 지각을



신도원작 '과거와 현재 사이의 미래'(왼쪽)와 박기태작 'BALANCE...GARDEN'

환기하고, 익숙함과 낯섬의 경계를 탐구한다. 사진 작업과 함께 여러 매체를 활용해 하찮은 것과 익숙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에서의 생활을 시각화한 작업을 선보인다.

신도원 작가는 미디어 작업을 기반으로 기존 레이어를 통해 보여준 추상 작업을 데이터로 시각화한다. 겹겹이 드러나는 그림의 변화를 통해 미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 AI의 기술적 고찰이 아닌 감성적 활용을 통한 미래 가치 추구에 초점을 두고, 미학적 경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미디어던스트 라이스통스웰레는 독일 뮌헨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듀오로 국제 미디어아트 연구 및 교류의 허브로 역할해오고 있다. 물과 곰팡이 같은 유기체와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며, 미디어아트·퍼포먼스·페인팅·음악·실용적인 패션 등을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를 탐구한다. 한국에 처음 방문한 경험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엘리 크루시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기반을 둔 학제적 아트 콜렉티브다. 사변적 서사를 다루며 퍼포먼스 형식과 혼합 미디어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설치·비디오·퍼포먼스·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지적 불일치의 순간을 창출한다.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한 영상 작품을 선보이며, 영상에 등장하는 조각 작품을 제작해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해외교류기관 파견 작가의 결과발표세미나를 진행한다. 미

술관은 지난 2-5월 대만 타이난 '샤오롱 아티스트빌리지'에 김다빈 작가를, 2-4월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14'에 이수훈 기획자를, 7-9월 독일 뮌헨 '빌라 발트베르타' 레지던시에 서영기 작가를 파견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류기관 해외레지던시 파견을 희망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국내외 입주작가들이 펼친 레지던시에서의 작업을 살펴보고 외부 관계자 및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교류의 장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인식의 시작' 결과전은 결과발표세미나가 열리는 28일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북구 하서로52 중의공원 내)에서 만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라이스통스웰레작 'footnotes'



박세연작 'Einstein Spectre'

김소정 작곡집 출간 음악회 '아름다운 5월의 노래'

오는 1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오월의 낭만적인 서정과 광주의 아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는 음악회가 마련됐다.

김소정(사진) 작곡가 예술가곡집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 출간 기념 음악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지원금으로 발간된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에는 총 41곡이 담겨있다. 여러 시인의 아름다운 가사와 김 작곡가가 직접 지은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들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중 9곡을 선보인다. 피아노는 박지현, 바이올린은 임리경, 사화는 김정희 씨가 맡는다.

바리톤 염종호가 김지열 시 '사랑은 모닥불에 잠기고', 박영애 시 '손에 잡히지 않아 아름답다'로 서막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김선희가 성명순 시 '바람의 언덕'과 최윤희 시 '가을 사랑'을 노래하며 김소정 작곡가가 무대에 나서



자작시 낭송 '바닷가에서'를 들려준다.

이어 시낭송가 김선목이 김소정의 시 '무등산 연가'를, 김효비 야가 김소정의 시 '오월, 그날의 불꽃'을 낭송하며 바리톤 염종호가 박원자 시 '그대와 둘이서'를 선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소프라노 김선희와 바리톤 염종호의 이중창 '오월, 그날의 불꽃'이 장식할 예정이다.

김소정 작곡가는 "성악뿐만 아니라 시낭송도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공연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만의 서정과 아름다운 계절 오월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문의 010-3648-5755. /최명진 기자

전남미술 거장 김영태·김형수 작품세계 조망

함평군립미술관 특별기획전 '백화난만'

함평군립미술관이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를 기념하는 전시 '백화난만' (百花爛漫)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향 전남의 거장 김영태, 김형수 작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영태 작가는 1927년 함평 출생으로 전남의 첫 미술대학인 조선대 1회 졸업생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작가이다. 구상회화를 고수하면서도 유연한 시각과 기법으로 후학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김형수 작가는 1929년 해남에서 태어나 한국화의 대가로서 전통회화의 기법을 계승하며 진경과 사경 산수화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시는 약 100년에 가까운 미술사 흐름 속에서 작가의 길을 걸어온 두 작가의 삶과 예술의 궤적을 살펴보는 자리다. /최명진 기자



김형수작 '아진(雅陣)'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전시 주제인 '백화난만'은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흐드러진 모습을 뜻한다. 이는 백수(白壽)를 바라보며 한평생 회화 길을 걸어온 두 작가의 삶의 여정과도 닮았다.

/최명진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